

안방극장 ‘연하남 전성시대’

류준열, ‘인간실격’ 전도연과 호흡
김재영은 고현정과 멜로연기 펼쳐
이도현·임수정 사제 로맨스 눈길
장기용은 송혜교와 연상연하 연기

‘연하남’이 뜬다. 올해 안방극장에 연상연하 커플의 로맨스가 쏟아진다. 전도연·고현정·임수정·송혜교 등 40대 톱스타의 상대역으로 낙점된 2030세대 연기자들이 일찌감치 시청자 호기심을 모으고 있다.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넘나드는 류준열·김재영을 비롯해 주목받는 신예로 평가 받는 이도현·장기용이다. 이들은 베테랑 선배들과 연기 호흡을 통해 새로운 청춘스타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류준열과 김재영은 ‘파격 멜로’에 도전한다. 각각 JTBC ‘인간실격’의 전도연, ‘너를 닮은 사람’ 고현정과 파트너를 이룬다. 적지 않은 나이차의 연상연하 커플 설정이다.

극중 방황하는 청춘을 연기하는 류준열은 삶에 권태를 느끼는 40대 전도연과 만나 겪는 변화를 잔잔하게 그린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등을 만든 허진호 감독의 첫 드라마 연출작을 무대 삼는다.



류준열(35)·김재영(33)·이도현(26)·장기용(29·이상 왼쪽부터)이 40대 여성 연기자들과 함께 연상연하 커플의 로맨스를 그린다. 스포츠동아DB·사진제공 | 소박스·KBS·tvN

김재영은 욕망에 충실한 예세이 작가 고현정과 얹히는 젊은 조각가 역을 맡았다. 악연인 신현빈과도 인연이 닿아 치정 복수극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KBS 2TV ‘비밀’ ‘눈길’ 등으로 과감한 필력을 자랑한 유보라 작가와 손잡았다.

이도현과 장기용은 ‘로맨스 강자’로 꼽히는 임수정, 송혜교의 상대역으로 나선다. 저마다 tvN ‘멜랑콜리아’(가제)와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하반기에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도현은 ‘멜

랑콜리아’에서 교사 임수정과 스캔들에 휩싸이는 학생 역할로 등장해 사제의 로맨스를 펼친다. 장기용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패션 포토그래퍼를 맡아 패션회사 디자인팀장 송혜교와 톡톡 튀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두 사람은 최근 안방극장의 ‘루키’로 꼽히면서 다작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KBS 2TV ‘오월의 청춘’, tvN ‘간 떨어지는 동거’의 주연으로 각각 나서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잇단 연상연하 로맨스는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시선이 나온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26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연상연하 커플에 대한 편견이 점점 소멸해가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드라마의 주 시청자인 여성에게 순수한 면모를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연하남’ 캐릭터가 스타 ‘등용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방탄소년단

BTS ‘버터’ 빌보드 팝 에어플레이 차트 26위

그룹 방탄소년단이 신곡 ‘버터(Butter)’로 미국 빌보드 ‘팝 에어플레이’ 차트에 진입했다. 빌보드가 26일 발표한 최신 차트(29일자)에 따르면 ‘버터’는 팝 장르 상위 40곡의 미국 160개 주요 라디오 방송국 주간 방송횟수를 집계하는 ‘팝 에어플레이’ 차트에서 26위에 올랐다. 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팝 오브 더 솔:7’(123위),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152위), ‘BE’(161위) 등 모두 3개의 앨범을 올리는 기록도 썼다. 방탄소년단은 세계 최대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에서도 ‘글로벌 톱 200’ 2위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박시연 벌금 1200만원



박시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연기자 박시연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26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단독은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1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추돌했다. 박시연은 2006년에 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트와이스, 美 NBC ‘엘렌 드제너러스 쇼’ 출연



트와이스

그룹 트와이스가 미국 NBC의 대표 토크쇼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 출연한다. 데뷔 이후 처음이다. 26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가 9일 새 미니앨범 ‘테이스트 오브 러브’(Taste of Love)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날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 ‘타임100 토크’, 4월 미국 NBC ‘켈리 클락슨 쇼’ 출연 등 북미 무대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엔 글로벌 행보에 대한 관심을 모은다. 이들은 9일 오후 6시 ‘테이스트 오브 러브’의 타이틀곡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내놓고 11일 미국에서도 음반을 정식 선보인다.

tvN 드라마 ‘멸망’ 해외 150여개국 판매

tvN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멸망)가 해외 150여개국에 판매됐다. ‘멸망’은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150여개국에 방영권이 팔렸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 일본 넷비트 재팬을 통해 가장 먼저 시청자를 만날 전망이다. ‘멸망’은 초현실적 존재와 얽힌 인간의 이야기를 그리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로, 장르적 색깔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vN 측은 이 같은 특색으로 해외 시청자에게도 보편적 스토리로 다가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MBC ‘복면가왕’ 일본판 아마존 프라임서 공개

MBC ‘복면가왕’이 국내 예능프로그램 최초로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선보인다. ‘복면가왕’의 일본판이 ‘더 마스크드 싱어(The Masked Singer)’라는 제목으로 미국 OTT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9월부터 공개된다. 2015년 첫 방송 이후 해외 50여개국에 포맷을 수출한 ‘복면가왕’이 글로벌 OTT로 이용자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MBC는 “세계 최고의 예능프로그램 포맷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향후 글로벌 OTT에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11월 극장에서”…마동석, 마블 ‘이터널스’ 홍보 앞장

티저 예고 조회수 1500만건 돌파
프로모션 동참…할리우드행 박차

배우 마동석이 할리우드행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월 개봉하는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이터널스’에 출연한 그가 일찌감치 프로모션에 동참하면서 향후 더욱 빠른 행보를 예고했다.

‘이터널스’의 배급사 월트디즈니코리아는 마동석이 안젤리나 졸리 등과 함께 주연한 영화의 티저 예고편을 24일 공개해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500만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11월 개봉 일정을 한참 앞둔 시점에 본격적인 홍보프로모션을 시작하며 일찌감치 팬덤을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마동석은 이에 26일 자신의 SNS에 ‘이터널스’의 포스터 사진과 함께 “In theaters this November!”(올해 11월 극장에서)라는 글로 영화를 알렸다. ‘Don Lee’라는 이름으로 주연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수백만년 전 지구를 배경으로 불사의 종족 이터널스가 펼쳐내는 모험의 이야기를 그



마동석(왼쪽에서 세 번째 서 있는 이)이 주연한 ‘이터널스’의 한 장면.

사진출처 | ‘이터널스’ 예고편 캡처

린 영화에서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로 나선다. 거구의 몸집처럼 강력한 힘을 지닌 인물이다.

개봉 일정을 6개월여 앞두고 이른 프로모션 행보에 나선 마동석은 ‘이터널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2019년 OCN 드라마 ‘트랩’의 미국 리메이크작 ‘더 클립’을 비롯해 또 다른

액션영화, 복싱을 소재로 한 작품 등을 할리우드에서 펼쳐낼 것을 알린 바 있다.

한편 마동석은 현재 2017년 688만 관객을 불러모은 흥행작 ‘범죄도시’의 속편 ‘범죄도시2’의 촬영에 한창이다. 또 ‘범죄도시’의 일본 리메이크작에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7주년 맞은 마마무, 데뷔 첫 발라드 도전

6월2일 새 앨범 ‘웨어 아 위’ 발표
이미지 변신으로 7년 징크스 극복

걸그룹 마마무가 올해 데뷔 7주년을 맞아 변신을 예고했다. ‘피아노맨’, ‘넌 이즈 뭔들’, ‘데칼코마니’, ‘힙’ 등 잇단 댄스곡을 히트시키며 사랑받은 이들이 트레이드마크인 탄탄한 라이브 실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 등을 앞세워 올해를 ‘특별한 해’로 삼을 기세다.

지난해 네 멤버의 솔로 활동에 집중했던 마마무가 7개월 만에 완전체로 모여 6월 2일 새 앨범을 발표한다. 2014년 6월 디지털 싱글 ‘행복하지마’로 데뷔한 이들은 다음달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채로운 활동 등 이벤트도 진행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새 앨범 타이틀곡으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발라드에 도

전한다. 26일 소속사 RBW에 따르면 마마무는 새 미니앨범 ‘웨어 아 위’(WAW)를 통해 ‘실력과 걸그룹’의 위상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WAW’는 마마무의 2021년 프로젝트를 알리는 ‘웨어 아 위’의 첫 번째 첩터로, 데뷔 이후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낸다.

또 여름 콘서트와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최근 180도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멤버들의 사진을 비롯해 앨범 티저 영상 등을 선보여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마마무의 이 같은 행보는 가요계 7년차 징크스’와도 관련이 있다. 7년차 징크스’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과 소속사의 전속계약 기간을 7년으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서 나온 말이다. 실제로 마마무와 같은 해 데뷔한 갯세븐, 여자



마마무

친구 등이 7년차 징크스’ 속에 소속사와 결별했다.

이에 마마무의 재계약 여부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멤버 중 휘인을 제외하고 문별, 솔라, 화사는 최근 소속사와 재계약을 맺었다. 소속사 측은 “멤버별 계약기간이 달라 (재계약율)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계약기간이 남은 휘인과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마무는 “이 시기는 ‘마의 7년’이 아니라, 7년차를 이겨낸 마마무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미나리

다양성의 가치 되새긴 미나리
인종차별 맞서는 아이콘으로

영화 ‘미나리’가 인종차별에 맞서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에서 번져가고 있는 인종차별과 아시아인 증오 범죄에 경종을 울리며 인종 및 문화 다양성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되고 있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인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민자의 신선한 삶을 그리면서 동시에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는 미국사회의 한 단면을 담아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인종 및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되새기는 작품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최근 미국 뉴욕한국문화원은 뉴욕 할렘의 데모크라시 프랩 교묘에서 ‘미나리’를 특별 상영했다. 학생과 교직원 등 250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관람했다. 뉴욕한국문화원은 “아시아인 증오 범죄 등 인종 갈등을 문화의 힘으로 이겨내자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라고 밝혔다.

앞서 ‘미나리’는 2월 할리우드외신기자 협회가 주관하는 골든글로브에서 미국영화이면서도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분류됐다. 한국여 대사가 대부분이라는 점만으로 해당 부문 후보로 지명되면서 골든글로브측의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더해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의 폐쇄적 운영 등 갖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할리우드에서 골든글로브 보이콧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미나리’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윤여정도 인종차별과 아시아인 증오 범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4월 포브스 인터뷰에서 “LA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인 아들이 아시아계 증오 범죄 때문에 나의 미국행을 걱정한다”면서 “이건 끔찍한 일이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